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오경석**·정건화***

A Critical Review of ‘Borderless Village’ Project at Wongok-Dong, Ansan*

Oh Kyung Seok**, Jung Keun Hwa***

요약 :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장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장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주요어 : 국경없는 마을, 이주노동자, 국경없는 시민권, 다문화 공동체

Abstract : “Borderless village” is a kind of alternative social project to build a multi cultural community of migrant workers around Wongok-Dong, Ansan led by Ansan Migrant Center since 1999. We thought this project deserved attention from a view point of social sciences for such reasons as follows. (1)This project could give an opportunity for us to examine the concret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local areas and responses of these areas to those ones. (2)This project was composed of theoretical concepts very similar to those of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So by examining this project we could have a chance to judge the validity of the latter. (3)The process of making discourses on this project was very interesting. It looks like more democratic and constructive one than others. (4)This project proposed the problem of creating a new form or way of social movement different from so called ‘old or new social movements.’ Our provisional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this project could be estimated as very creative and progressive one but it was too abstract to be realistic and effective yet.

Key Words : borderless village, migrant workers, civil right of borderless workers, multi-cultural community

1. 문제의 제기

‘국경없는 마을’이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원곡동은 본래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된 곳이었는 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단에 이주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유입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로 그 성격이 급변하게 된다. 주민의 50% 이상이 이주 노동자들로 대체됨으로써 원곡동의 경관

과 상권이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제들도 출현한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유례없이 다문화적 시공간으로 변모한 원곡동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안산시 원곡동이라는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적인 공동체 운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사회과학적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현대 사회과학의 몇 가지 중요한 논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정확하고 따뜻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imnotim@freechal.com)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gunna@hs.ac.kr)

우선 국경없는 마을은 지구화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유효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실증적인 준거로 고려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화와 그 효과를 둘러싼 분분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과대지구화론이 지구화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삶의 공간이 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구화회의론은 지구화를 시장과 자본의 국제적 확장에 불과한 특수한 현상으로 폄하한다. 최근들어 그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지구화를 지구화와 지역화, 지구화와 반지구화 등의 상이한 경로와 동력들로 복잡하게 구동되는 소위 다중적 변환론이라 불릴만한 입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Held, 1999) 지역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지구적(곧 탈지역적) 공동체 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국경없는 마을은 특히 마지막 입장의 구체적인 효과를 평가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지구화에 의해 추동된 지역의 지구화 현상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지구화의 지역화 현상으로 독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의 실질적인 관계 혹은 그 변형의 양상에 관해 국경없는 마을은 우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한국적 타당성 내지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경없는 마을은 유용한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성찰적 근대화란 서구의 경우 국민국가라는 '영토의 덩어리'에 폐쇄되어 있던 전통적 근대화 패러다임의 개방적이며 자기적용적인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근대의 근대화 혹은 근대의 급진화 기획을 지칭한다.¹⁾ 우리의 경우엔, 소위 압축적 근대화 패러다임이 초래한 발전의 지체를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적인 발전 전략으로 거론되곤 한다.(임현진 등, 2002) 다원주의적이며, 생태친화적인 방식으로 수정된 근대화 기획으로서 성찰적 근대화는 지구화를 동력으로, 탈국가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적이며 가변적인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의 "복수지연(複數地緣)의 삶의 형식들"을 통해 구동되는 것으로 개념화되곤 한다(Beck, 1997). 흥미롭게도 지구성, 지역주의, 다원적 보편주의, 다문화적 공동체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

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성찰적 근대화론과 강한 내적 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보는 일은 규범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안적인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성찰적 근대화론의 현실적 유용성을 검증해보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발의되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또 다른 맥락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1990년대 중반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센터로 표기함)의 대표인 박천웅목사(이하 박목사로 표기함)에 의해 기획되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인 지평에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를 위해서 값싼 노동력의 판매자로부터 총체적인 인간으로, 일시적인 체류자에서 함께 정주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었다. 그의 문제의식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일상의 차원에서 실천해보려는 시도였었다. 이처럼 이 프로젝트는 현장 운동가의 독자적인 경험과 문제의식으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논의 참가자들의 폭이 넓어지며 논의의 수준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상승한다.³⁾ 그를 통해 최초의 거친 문제의식들이 차츰 정제해져가고 그것은 다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피드백되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과제를 만들어내는 질료들로 사용된다. 이 과정은 학문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론과 현장 사이의 유기적인 통합성이 민주적이며 자기계몽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과제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의 기제로서 사회적 공론 장을 창출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실험성을 검토해보는 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에 대항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들 사이의 다문화 공동체 만들기(곧 대안적인 지구화) 운동이라는 복합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런 복잡성으로 인해 국경없는 마을을 기존 운동론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국경없는 마을은 노동 계급의 운동이자 동시에 이주자라는 소수자들의 정체성 운동이 되기도 하며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비제도적인 공동체 운동이자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청원하는 제도개선 운동이 되기도 한다. 지역 차원의 주민 운동이지만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문화적 연대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탓에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서는 운동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새로운 운동 이론을 요구하는 실험적인 운동, 그것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효과를 조사하고 그를 평가해보는 일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방식을 궁구해본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이론과 실천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실험성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에 기초해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선구적인 프로젝트가 안산시 원곡동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몇 년 째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선구적인 실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고⁵⁾,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주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독창적인 개념과 다기한 사회과학적 이론들의 조합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 이론적인 기획이 아니요, 실천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그 이론과 실천, 양자 모두를 균형있게 조사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주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문헌 검토와 이론적인 논평으로 제한될 것이다.⁶⁾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선 다음 장에서 박목사와 센터의 문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전체적

인 윤곽과 내용, 진행 상황을 그려보일 것이다. 그를 토대로 3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논쟁적인 평가를 내려 보려고 한다. 프로젝트의 다중적인 자기 규정의 문제, 이론 자원들에의 과잉 의존성, 프로젝트의 철학과 조화되지 않는 지역 사회 커뮤니티로부터의 고립의 문제,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의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 개진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기술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우리들의 네 가지 관심사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실재와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논구해보고, 그를 토대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향후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이론과 실천이 선구적이며, 값진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지구화 시대에 조용하며 새로운 근대화 전략에 해당하는,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사회변화의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터하고 있는 철학과 이론 그리고 개념들의 엄밀하며 유기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론과 현장의 통합성이 명목적인 것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철학과 방법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자기 검열될 수 있는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자기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이주 노동자들 자신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및 지역 사회 커뮤니티와의 효과적인 결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국경없는 마을의 발의자이며 추진 주체인 박목사와 센터는 2002년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

체'라는 문건을 자체 제작해서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강의안의 제작을 통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경과와 내용, 방식,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대내적으로 교육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 장에서는 그 책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출범 배경과 진행 과정, 중점 사업, 추진 방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센터가 동원하는 몇 가지 주요한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그에 대한 센터의 해석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출범 배경

안산시 원곡동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999년이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살면서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배타적인 차별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몇 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것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이다(박천웅, 2004c). 1990년대 초반부터 안산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활동에 전념해왔던 센터의 사업 방식이 노조운동, 귀환운동 등의 방식에서 국경없는 마을로 압축되는 다문화공동체 운동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박목사 자신의 문제의식의 변화와 반월 공단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원곡동의 상황변화라는 주객관적 요소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1995년 무렵부터 원곡동에서는 소위 ‘코시안’⁷⁾이라 불리는 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합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1997년 호적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들에게 합법적인 한국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원곡동의 일상에서 그들을 향한 인종적, 문화적 차별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법규범의 제정과는 또 다른 문제였던 셈이다. 법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박목사의 새로운 모색이 시도된다. 일상의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자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⁸⁾ 박목사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센터의 소식지 제호를 “나

눔과 일터”에서 “국경없는 마을”로 변경함으로써 공식화된다.

IMF 이후 초래된 원곡동의 변화는 박목사와 센터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구체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IMF로 인해 반월공단의 중소사업장들 다수는 폐업하고, 공단은 소위 ‘마찌코바(극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형태로 재편되게 된다. 그 결과,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내국인 노동자들이 원곡동을 떠나고, 대신 그 자리를 ‘마찌코바’에 근무하게 될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는 상황이 발생한다. IMF로 인해 공단이 재편됨으로써 공단 내국인 노동자들의 배후주거지였던 원곡동은 단기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로 변모하게 된다. IMF 이후 원곡동의 인구 구성은 원곡동의 극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2년 5월 원곡동에는 약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만 8천명의 내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안산역에서 원곡본동 사무소에 이르는 원곡동의 중심가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80~90%는 외국인들이다. 원곡동 내에 위치한 각종 서비스시설 고객의 60~70%(병원환자의 60%, 상점, 미용실 고객의 70%, 부동산중개소의 90% 등)도 외국인들이다. 원곡동에는 60여곳의 중국 상점, 20여곳의 동남아 상점이 성업중이다(박천웅, 2002).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1999년 “다문화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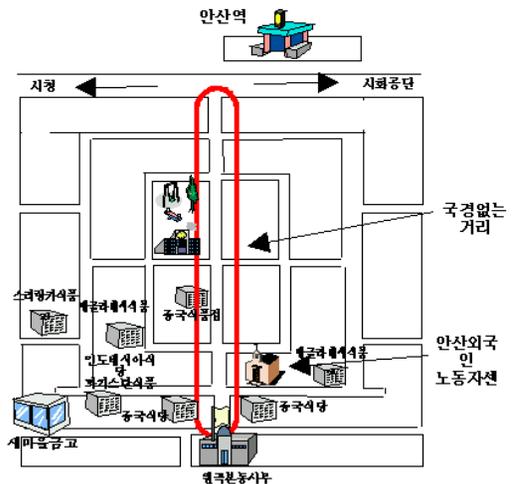


그림 1.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에 이르는 국경없는 거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한 공동체의 건설, 국경없는 노동자들의 시민권 확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국경없는 마을 1차년도 5개년 계획”의 추진 일정⁹⁾이 수립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박천웅, 2001)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접촉점 형성, 지역문제 드러내기,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인식 확대, 국경없는 마을 주민조직, 지역사회조사, 공동프로그램 기획, 주민교육, 공동프로그램 시행, 평가 및 발전 계획 수립”이라는 10단계로 구분된 활동 로드맵으로 구체화된다(박천웅, 2002).

박목사는 국경없는 마을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정당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을 통해 국내 외국인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농촌의 경우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재편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일시적인 방문 노동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런 관점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을 뿐이다.¹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공동구성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가 되는 셈인데 그를 목표로 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구화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재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정체성의 다원주의적 확장은 보다 민주적인 사회통합성이 형성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등록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주노동자들과의 공동체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¹¹⁾

원곡동 주민들 및 기타 한국인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도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2년 원곡동 주민의식조사 당시,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외국인의 경우 8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73.6%정도는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한국인의 경우도 55.3%가량은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박천웅, 2002) 2004년도에 시행된 경기도 지역주민 의식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 무려66.7%에 달하는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 입장은 15%에 불과했었다(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2004).

이런 근거에서 박목사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안산시 원곡동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이주 노동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2) 경과와 중점 사업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안산시 원곡본동을 중심 지역으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공단동, 신길동 등에 거주하는 8만여명의 내외국인(그 중 50% 정도가 이주노동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천웅, 2005). 박목사는 출범 이후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온 경과를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요약한다.

첫 번째 단계는 1999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시기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준비기이자 기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 주민 및 이주 노동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준비 그룹’을 구성해 교육하는 일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 조사 및 지역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해 공통의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일이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내외국인들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1회 내외국인 공동 마을 청소의 날을 제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2002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시

기로 상호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기 위해 ‘다문화 축제’를 활성화시킨 시기에 해당된다.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춤과 노래, 놀이, 음식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장이 축제다. 축제는 상호간의 이해와 친밀도를 제고시켜줌으로써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설날 잔치, 추석에 행해지는 콩팍 축제, 원곡동 월드컵, 외국인 문화 한 마당, 지역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이 원곡동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다문화 축제들이다. 다문화 축제는 현재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세 번째 단계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경없는 마을의 본격적인 추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와 지역 사회와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 시기의 핵심 사업으로 상정된다. ‘목적의식적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고, 다양한 주민 조직 및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및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식 및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 등이 주요한 과제로 설정된다.

3) 국경없는 마을의 성격과 추진 방식

국경없는 마을은 관념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21세기형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praxis)¹²⁾ 프로젝트이다. “인권, 나눔, 공동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국경없는 마을의 강령에 해당하며, 그러한 가치의 구현을 위해 국경없는 마을은 “인식, 제도, 실천”이라는 세 차원 모두에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시적이며 동시에 미시적인 사회 운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영역과 대상은 광범위하다.¹³⁾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과 지구라는 공간적 범주를 가로질러 사회 구조와 인간의 의식이라는 양자 모두의 급진적 변혁을 추구한다. 박목사는 그와 같이 전방위적인 국경없는 마을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한다(박천웅, 2005). 첫째, 국경없는 마을은 ‘의식 개혁’ 운동이다. 둘째, 국경없는 마을은 ‘주민 조직’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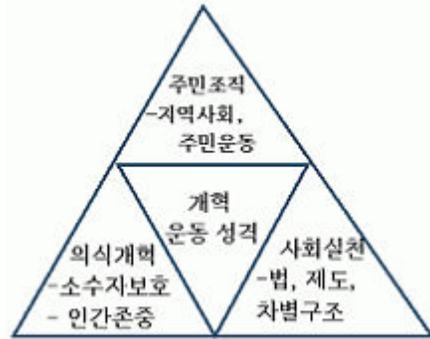


그림 2. 국경없는 마을의 ‘의식 개혁’ 운동적 성격. 박천웅,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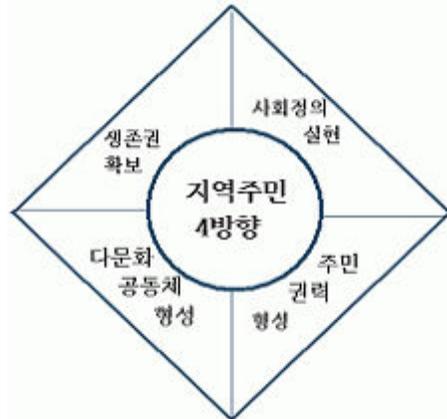


그림 3. 국경없는 마을의 ‘주민조직’ 운동적 성격. 박천웅, 2005



그림 4. 국경없는 마을의 ‘사회 실천’ 운동적 성격. 박천웅, 2005

셋째, 국경없는 마을은 ‘사회 실천’ 운동이다.

다중적이며 복잡한 자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은 문화적 실천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국경없는 마을이 강조하는 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적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삶의 기술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갖는다. 다른 한 편 운동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급진적이 되 비폭력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밖의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적 실천의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적 역량(공동체적 인간)과 환경(공동체적 삶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문화적 실천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여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과 기반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해보자는 것이 문화적 실천을 관류하는 문제의식이다.

문화적 실천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의 키워드는 결국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는 공간적인 근린성과 그것을 초월하는 심리적인 유대감 모두와 관계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인간화된 생활공간이자 동시에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다문화적 인간관계(혹은 인간성)를 의미할 수도 있는 공동체 내부에

서 “배제, 소외, 경쟁, 차별”과 같은 적대적 가치와 태도들의 근거는 무효화될 수 있다. 공동체로 압축되는 대안적인 문화는 구체적으로 ‘다문화, 공동체 문화, 협동 문화’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박목사에 따르면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그림 5, 6).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존재한다. 원곡동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는 자신들의 고객을 지켜내기 위한 기득권 방어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원곡동의 상인이나 건물주들 대부분이 원곡동 거주자가 아닌 탓에 참여 문화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다. 국경없는 마을의 또 다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센터와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센터의 경우 과중한 상담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문제가 된다.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장기적인 문화 운동에 집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 관심도, 참여 의지, 이해관계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국경없는 마을을 인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유관 행정 단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운동의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 관료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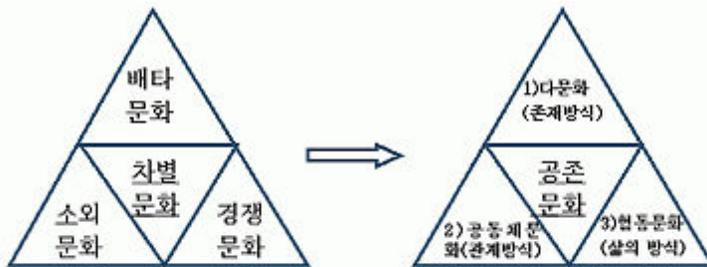


그림 5. 국경없는 마을이 기획하는 문화적 전환의 내용. 박천웅, 2005



그림 6. 국경없는 마을이 기획하는 대안 문화의 내용. 박천웅, 2005

직의 행정 이기주의와 지자체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비밀관성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목사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내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실험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주 노동자 문제가 지역이 공유하는 사회의제화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하는 다른 지역 사회에 지침 및 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이 그가 제시하는 국경없는 마을의 “기대 효과” 들이다.

4) 이주노동자학과 국경없는 시민권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독특함 중의 하나는 그것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운동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자기규정의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에 대해 박목사는 “운동의 준거로 채택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기존 이론이 부재”하는 탓에 프로젝트의 주관자들 스스로가 이론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다. 박목사에 따르면 그러한 이론적 작업은 ‘이주노동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에 귀속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학은 지구

화, 시민권, 다문화공동체 라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개념들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해석들은 국경없는(다문화)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¹⁴⁾

국경없는 시민권의 개념화는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구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신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방식의 지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목사의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가 유동성과 권리 행사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다면, 대안적인 지구화란 국경을 넘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와 타국에서의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의 수준에 버금가게 보장되는 지구화를 뜻한다.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할 수 있고 어느 곳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화, 그것이 바로 국경없는 시민권이 된다.

국경없는 시민권이란 결국 국민 국가의 폐쇄적 영토성, 자족성을 약화시키는 지구화 국면에서 전통적인 일국적 시민권을 초국가적인 정치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로 개방적으로 확장시키려는 개념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시민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박목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박천웅, 2001)

박목사는 시민권이 궁극적으로 체제친화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 1. 국경없는 시민권 구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시민권의 과도기적 내용

외국인노동자 시민권	시민권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내용
시민적 권리	-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 신분과 관계없이 송금 허용 - 외국인노동자 변호사제 도입
정치적 권리	- 지방자치 내 외국인 위원회의의 설치 - 외국인 노동자 자치조직의 지원
사회적 권리	- 국제결혼 가정 배우자 이름 주민등록 등본 정식 기재 (혼인신고 합법적으로 해도 호적에만 등재-주민등록등본상 등록제외) -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인정 있는 포용 : 강제 추방 등 - 불법체류자 전면 사면 및 영주권 제도 도입 - 불법체류자 벌금제도의 철폐 - 산업연수기술연수생제도 폐지 노동자 권리 인정 대체입법도입 -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의 전면 및 노동인력 활용 방식 - 사회복지제도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 - 외국인노동자 전문 복지 시설의 확충

자료: 박천웅, 2001.

러한 시안이 “당파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안을 정책화 하려는 노력을 통해 현재 계도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내 이주 노동자 공동체들이 향후 지구시민사회적인 다문화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5) 국경없는 마을의 철학

박목사가 제시하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를 관류하고 있는 두 가지 철학 사상은 제임스 콘의 흑인 신학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이다.

Cone(1975)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흑인됨”이다. 하느님은 분명 약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구원 사업의 핵심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약자를 주인공으로 개진되지 않는 모든 신학은 허구거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보편적인 인간의 이름으로 강자의 특권과 약자에 대한 억압이 은폐되고 정당화되는 탓이다. 이런 면에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약자되게 하는 사회 구조를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신학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Freire(1970) 교육론의 요체는 “피억압자의 피억압자됨과 억압자의 억압자됨을 동시에 그치게 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대화와 만남, 의식화, 프락시스”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된다. 해방 교육은 지배 문화에 대한 체화된 굴종을 의미했던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고 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과학적이며 동시에 보다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건설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박천웅, 2004c)

박목사는 이들로부터 자신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사상이 한국 사회가 “배타적이며 차별적인 단일 민족 신화를 제거하고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흑인이요 피억압자들이다. 그들은 “21세기의 문턱에 한국사회를 찾아온 지극히 작은 자”¹⁵⁾들에 해당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적 대동 세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선택의 대상

이라기 보다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당위의 성격일 수 밖에 없어진다. “하느님 나라에서 차별과 배제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예행 연습”(박천웅, 2002~2005), 그것이 바로 국경없는 마을이 되는 뜻이다.

3. 몇 가지 쟁점들

국경없는 마을은 그 공간적인 거점이 안산시 원곡동이라는 작은 마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전망에 있어서는 방대하며 급진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지구화 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 사회 구조와 인간의 변화 모두를 요청한다. 선례가 없는 새로운 사회 운동 프로젝트로서 국경없는 마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안과 실행뿐만 아니라 이론의 입론 및 철학과 신학의 구성까지를 자신의 활동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성이 이 프로젝트의 실험적인 선구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미덕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통합성이 엄밀하며 유기적인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철학과 방법, 이론과 실천, 장기적인 전망과 단계적인 실천 프로그램, 동원되는 이론과 이론들, 프로젝트가 작동하는 다양한 규모의 공간들 사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정치한 매개의 논리와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통합성에 대한 강조가 자의적인 실천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배제의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탓이다. 통합성에 대한 강조가 조급한 실천의 강박과 결합되는 경우 예상되는 더욱 큰 곤궁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그것이 애초에 “목표하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조명래, 2003)로 귀결될 가능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경없는 마을의 성격, 이론, 활동 방식, 철학 등과 관련되어 제기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국경없는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경없는 마을은 다중적인 자기규정을 갖고 있

다. 원곡동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내외국인을 대등한 구성원으로 아우르는 공동체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 공동체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방식이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문화적 배타성과 차별에 대항하는 대안 문화 지지자들 사이의 연대체로도 규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원곡동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지구적 지평을 향해 개방된 일종의 ‘마음 혹은 신념의 공동체’에 해당된다. 국경없는 시민권의 구현을 최종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비제도적인 공동체 이상의 법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공동체 외부에까지 적용 가능한 대안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규칙제정자(혹은 규칙제정을 위한 청원자)로서의 자기규정을 갖게 된다.

문제는 국경없는 마을의 이러한 다중적인 자기규정이 상호배타적인 전제에 터하고 있는 이념 지향들에 의거해서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가 보편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자유주의의 획일화, 동질화 경향으로부터 개별 인간들의 개성과 이질적인 정체성, 특수한 삶의 방식들을 구체해내기 위한 반자유주의적인 사유의 산물이라면 시민권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사유의 산물이다. 공간적인 공동체가 엄격한 입회 자격, 강한 내부 규약과 결속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문화 공동체는 탈물질적이며, 개방적인 느슨한 연대를 특징으로 한다. 공동체가 기존 체제와 지배적 가치로부터의 탈주와 이탈을 지향하는데 반해 시민권은 체제로의 순응과 제도화를 지향한다.

결국 국경없는 마을의 다중적인 자기규정은 “자체의 전제를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상대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공약불가능한 이념 지향들에 터하고 있는 셈이다. 명목적이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들 이념 지향들을 동시에 사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는 달라진다. 원곡동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구적인 차원의 탈지역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 물질 기반을 공유하는 탈물질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 비제도적인 공동체를 제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 국경없는

시민권이라는 보편적인 꿈을 특수한 공동체 집단이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방식 등이 적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 그들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없는 마을의 타자로 배제될 수밖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이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이론의 과잉

사회과학의 이론적 자원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논쟁적인 것들이다. 지구화, 시민권, 공동체주의, 다원주의 등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활용하는 이론적 자원들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론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 국경없는 마을은 ‘이론의 과잉’이라고 할 만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논쟁적인,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 사회과학의 개념들을 대체로 일면적이며 완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지구화의 대안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도구 이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이론적 자원들에 대한 편협한 해석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지구화”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자체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균등한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소유 관계에 있어서 지구적인 부와 지역적인 빈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전자는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에 버금가는 노동의 지구적 이동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빈곤화된 지역들(forgotten places)의 지위를 복권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박배균·정건화, 2004).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자체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세계체제로서의 지구

화를 거부하고 일종의 반지구화 혹은 탈지구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단일하며 통합적인) 세계에 대한 거짓 이미지들을 분쇄하고, 강제되고 지구화된 소통적 통일체 내부에서 과열의 지점들, 곧 독특한 집단성에 근거하는 새로운 절대의 공공 공간을 구성"(Negri, 1998)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대안적인 지구화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오직 한 가지(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아마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일종의 완결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자체를 문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국경없는 마을이 기획하는 자본의 이동력에 버금가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지구화 자체에 대한 저항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방식의 지구화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특정한 방식의 지구화를 정당화해주고 그 외연적 확산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국경없는 시민권은 마샬류의 근대적(일국적) 시민권을 탈근대적(지구적) 차원에서 재개념화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 탈근대 규정과 관계없이 시민권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논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계급의 시민으로의 전환의 적실성 문제, 사회적 배제를 전제로 추구되는 사회적 통합성의 정당성 문제 등이 고전적 시민권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쟁의 내용이라면, (일국적 시민권의 관철을 어렵게 만드는) 국가 주권의 약화에 대한 평가 문제, 국경없는 시민권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력(과 지구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배 계급)의 문제, 사회적 배제의 지구적 차원으로서의 확장 및 심화 문제 등은 탈근대 시민권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들이다.

시민권 개념이 이렇듯 복잡한 쟁점들로 구성되는 탓에 시민권의 내용 혹은 시민권에 대한 태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된다. 시민권은 "법적

지위나 권리"로부터 "정치적 행동, 정체성 혹은(문화적) 연대"(이철우, 2004a)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미 지평을 갖는다. 또한 시민권은 "비실체적, 배타적, 제국-공화주의적, 다문화주의적"이라는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평가될 수 있다(Castles · Miller, 1993).

시민권 개념의 의미와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경없는 마을이 제안하는 시민권 개념은 일면적이며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경없는 시민권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할 수 있고 어느 곳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권리"라는 포괄적이며 당위적인 규정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경없는 시민권을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재개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한 성장 경로가 빚어낸 특수한 사회 지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 시민권은 '자본주의-민주주의-복지국가'라는 삼각 동맹에 의해 지지되는 다원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조용해 출현한 개념이다. 이러한 서구적 맥락의 시민권 개념을 압축적이며 비자주적인 근대화 경로로 인해 '시장의 과잉 성장-국가정당성의 미확보(민주주의의 저발전 및 시민사회의 미성숙)-복지인프라의 미비'라는 특수한 사회 지형의 조성이 불가피해진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보다 정치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시민권이 배제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배제"로서의 통합의 기제가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생략될 수 없을 것이다(문성원, 2000). 이와 관련,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이주 노동자 시민권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김은실, 2004; 서동진, 2004; 유명기, 2004)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권 의식의 성숙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다문화 시민권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포괄적이며 당위적인 시민권 규정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구 역시 필요한 일

이다.¹⁶⁾

다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수단’이라는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목표라고 보기에 다문화 공동체 개념은 혼돈스럽고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추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경없는 마을의 다문화 공동체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표류¹⁷⁾하고 있는 이유를 다문화 및 공동체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와 관련해서 추론해 볼 수 있을 듯 싶다.

다문화 공동체가 ‘목표이자 수단’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공동체 자체를 일종의 완결된 선이나 정의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나 공동체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는 결코 아니다. 다문화의 문제는 대략 두 가지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추구하는 “차이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difference)” 기획의 이념적 조응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문화는 삶의 방식 및 정체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차이”를 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라 “상품화된 차이”를 생산하는 기제일 뿐이다(Harvey, 2000). 그 외연적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주의적 접근,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소극성,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은폐, 소수 집단들 사이의 과열된 경쟁의 유발, 도덕과 지식을 인종화할 위험”등 여타의 가치들을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다문화 개념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Martiniello, 1997).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동체 개념도 마찬가지다. 근대 공동체가 산업 사회의 물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항해서 인간적인 시공간과 삶의 방식의 복원을 회구했다면(조명래, 2003) 탈근대 공동체는 지구적 차원에서 획일화되고 동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항해서 다원적인 삶과 정체성을 기획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탈근대 공동체는 “공공 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율적 통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과제(조명래, 2003)로 자임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지만, “상당한 전망을 갖는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그러한 과제 수행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한다는 점(McLaughlin/Davidson, 1985)과

국가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동수, 2004)에서 기존의 공동체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장소와 정체성의 정치”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공동체주의를 통해 특정한 장소와 정체성(신분)의 특권적 지위가 강화되고, 그와 다른 장소와 정체성의 지위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탓이다. 인간에 대한 전적인 낙관에 근거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이동수, 2004)가 특정한 가치와 주제, 자원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와 공간, 삶의 방식간의 불균등한 분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공동체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수한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자기규정과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영향력과 규모의 한계를 엄밀히 설정하는(곧 특수한) 방식으로 기존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따라서 보편적인) 비판을 실행할 수 있는 공동체란 과연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는 일이 절실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2) 도구 이성예의 지나친 의존

국경없는 마을은 선례가 없는 실험적인 대안 공동체 운동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도와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의도와 계획에 대한 일관된 강조는 다만 방법론의 한계일 뿐 아니라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자체의 비판적인 대안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소위 산업사회적인 근대와 구분되는 지구화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근대의 독특한 성격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반화된다는 점에서 찾아지곤 한다(Beck, 1993).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반화된 새로운 근대는 세계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방법론을 요구하게 된다. 세계는 더 이상 정확한 예측 및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성과 부수 효과들이 편재된 혼돈의 생성지로 재규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및

사회에 대한 예측 및 통제와 특권적 도구로 평가되던 (과학이라는 용어로 집약되는) 근대 도구 이성의 지위는 “금기의 파괴자에서 금기의 구성자”로 전락하며 변화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지시물을 함축하는 대안 이상의 것”(Negri, 1998)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근대의 지평에서 대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계획’ 이상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가능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것이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체로 그것은 두 가지 경로로 모색된다. 우선 근대 이성의 타자에 해당했던 인식 도구들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믿음이나 영성” 혹은 “알 수 없음”(Beck, 1995) 등과 같은 것들의 인식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근대 이성이 억압했던 개별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행위 권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행위는 정형화된 삶의 포맷들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이다. 행위를 통해 세계와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체는 체계로부터의 독립된 삶의 공간을 생성해낼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수많은 도식들과 로드맵으로 자신의 새로움을 사물화시켜 버리고 만다. 전망과 이념의 급진성에 걸맞지 않게 ‘전문가주의’라는 낡은 방식에 얽매어 있는 셈이다.¹⁸⁾ 의도와 계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초래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현상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고착시켜버림으로써 역사와 현실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이 폄하될 수밖에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국경없는 마을의 독창성은 전통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게 되고, 미래지향성은 공허한 것 이상이 되기 어려워진다. 의도와 계획 속에서 국경없는 마을의 현재성은 끝없이 유예되고 말뿐이다.

3) 지역 사회 커뮤니티와의 결합의 문제

국경없는 마을의 모호한 자기규정과 이론의 과잉 의존 경향은 국경없는 마을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 명료한 자기규정에 입각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려워짐으로써 다문화

공동체의 현실적인 형성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몇몇 이론적 개념들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말미암아 현실 영역의 복잡성에 대한 구체적이며 비판적인 분석이 어려워진다. 행위 주체들의 역능과 이질성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화되어 버린다.¹⁹⁾ 이러한 약점들에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의 당위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경우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2005년 안산 시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26.4%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19.6%)를 압도했으나(안산의제21, 2006), 2004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 서부 지역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 64.2%(경기도, 2004) 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안산 시민들(53.51%)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산의제21, 2006) 안산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비판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안산 지역에서의 외국인 지원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기획하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지역의 사회적 의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²⁰⁾

원곡동이 각종의 사행성 오락실, 유흥업소들로 가득 찬 안산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게토화된 문화적 오지로 전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경없는 마을이 시대를 앞서가는 정당한 지향성과 보편적인 의미를 선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적인 거점이 역내에서 오히려 차츰 ‘잊혀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사회로부터 괴리된 국경없는 마을은 공허하거나 위험한 슬로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경없는 마을과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없는 마을의 탈지역적인 사업 관행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적인 메이저 미디어를 활용해 국경없는 마을의 이념과 의미를 알리는 일보다는 안산 지역 그리고 원곡동에만 고유한 소위 “부차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²¹⁾(세계화국제포럼, 2002)이 관찰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과 활동 방식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국경없는 마을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안산 반월 공단의 공동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반월 공단은 가동률이 60-70%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반월 공단은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4만여명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공단의 공동화는 국경없는 마을의 물리적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안산의 다양한 사회 세력들은 그들의 상이한 이념 지향에도 불구하고 공단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적인 태도를 공유한다. 문제는 국경없는 마을의 주관 기관인 센터 역시 공단 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한 이렇다 할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이 붕괴되는 경우 그 배후 주거지로서 원곡동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역동적으로 교호하는 다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 산업 예비군들이 배회하는 소모적인 문화 상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재활성과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산 지자체가 “원곡동을 좀 더 특성화해서 개발할 필요”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경없는 마을의 탈지역적인 사업 관행(과 그에 기인하는 국경없는 마을의 미래와 직결되는 지역 문제를 방관하는 소극성)은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게 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전지구적인 상품화, 시장화 경향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고,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운동임을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근거지가 신자유주의적 상품화, 시장화 공세에 무력하게 정복당할지도 모르는 현실을 방관한다면, 국경없는 마을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일까.

4) 참여 주체의 문제

이른바 ‘타자의 주체화 기획’은 최근의 사회 이론과 사회 운동이 가장 집중하는 주제중의 하나이

다. 주체와 타자간의 폭압적이며 자의적인 위계와 불평등이 근대 체제에 내장된 근본적인 맹점이자 과오였다는 문제 의식이 비판적인 사회 행위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²²⁾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선구성은 국경없는 마을이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의 판매자이자 문화적인 열등인자에 불과한 ‘불완전한(혹은 비정상적인) 비인간’으로 폄하하는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불의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 국경없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는 몇 가지 사회 과학(혹은 사회 윤리)적 개념들²³⁾을 참조했을 때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이상형적’인 추진 방식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내국인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국경없는 마을 추진의 이니셔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그들과 내국인 사이의 제도적이며 문화적인 불평등성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또한 안된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권리(공동체라면 가입과 탈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경없는 마을과 관련, 그들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그들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국경없는 마을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내 체류 9년차의 한 이주 노동자는 센터의 활동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해 준 바 있다.

“센터와 박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헌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박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 종류의) 집회에 목사님이 불러서 함께 참여할 때도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가긴 하지만) 거기 가면서도 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도착하고 나면, 그때서야 알려주거든요.”(2005년 4월, 방글라데시인 00씨와의 인터뷰. 괄호는 인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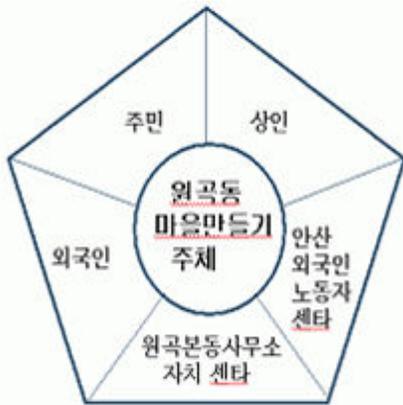


그림 7. 국경없는 마을의 추진 주체들.
박천응, 2005

주체화 의제에 있어서 센터가 보여주는 또 다른 미숙함은 실질적인 내부 민주주의(곧 상호주체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의 소극성이다. 센터는 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지원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비회원형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경없는 시민권을 주창하는 센터가 내부적으로는 비시민권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센터에 따르면 국경없는 마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추진 기구들 사이의 민주적인 파트너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그림 7).

그러나 이들 주체들 사이에 민주적인 의사 소통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곡동의 향후 개발 전망과 그 추진의 해계모니를 둘러싸고 이들 사이에, 그리고 이들 내부에,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5)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인가 허구적 보편주의인가

국경없는 마을은 독자적인 철학적 준거를 당당하게 표방하는 보기 드문 사회 운동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우리들은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세계 및 인간의 성격, 삶의 가능성, 도덕과 정의의 기초, 역사의 의미 등)에 대한 일련의 전체들”을 견지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Sire, 1976). 그

것이 우리들의 사고와 행위의 틀을 결정한다.²⁴⁾ 하지만 국경없는 마을이 의존하고 있는 철학적 준거들이 그 내용과 논리에 있어서 유기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검토의 대상이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서 이 세계는 하느님 나라를 연습하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세계의 물리적인 본질보다는 하느님 나라의 신적 본질이 우위에 놓인다. 하느님 나라를 연습하는 일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행해야 하는 정의로운 권리이자 의무의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신본주의’적 진리는 ‘실용주의’적 형태로 재규정된다. 약자들과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위한 싸움에로의 투신을 통해서만 신적 진리는 경험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바로 이 시대의 약자들이요 피억압자들이다. 그들의 해방을 추구하는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신적 진리의 현실태로서 다문화 공동체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다. ‘합리주의’에 입각한 의도와 계획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기제가 된다. 다문화 공동체는 축제와 환대라는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²⁵⁾ ‘반자유주의’를 지향한다.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는 ‘특수한’ 공동체이지만 국경없는 시민권을 매개로 모든 지구인들에게 개방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신본주의-인본주의, 실용주의-합리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특수주의-보편주의 등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저변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세계관들이 관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약불가능한 세계관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종합의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세계관의 다양성은 그저 혼돈스러운 세계 인식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급진적인 사회변혁 프로젝트의 동력이 혼돈에 대한 확신일 뿐이라면 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추론해볼 수는 있다.²⁶⁾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라는 종합의 원리가 그것이다.²⁷⁾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란 말 그대로 양가적이며 모순된 개념이다. 그것은 모순과 한계 인식에 기대어 비근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체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방적인 행위 윤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명증한 세계 인식과 비판적인 행위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되 인식의 자기동일적인 폐쇄성과 물화된 실천의 규범성으로부터는 자유로와지겠다는 것이 그것의 목표다. 따라서 이 경우 보편은 보편이되 사물화된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완결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존적이며 가변적인 것으로 재규정될 수 있게 된다.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라는 개념에 입각했을 때 국경없는 마을의 세계관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움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입혀질 수 있게 된다. 신본주의적 보편성은 피억압자의 당파성으로 비근본화된다. 피억압자의 당파성은 이방인으로서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귀속됨으로써 계급 본질주의 역시 중화될 수 있게 된다. 해서 일종의 소수자 보편주의 혹은 보편주의적 당파성과 같은 절충적인 종합 개념의 형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 귀결이 국경없는 시민권이요, 다문화 공동체인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다문화 공동체는 국경없는 마을의 목표이자 동시에 수단이라는 자기규정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의 보편 개념은 그것이 보편이되 생성되는 것이요,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항상적인 딜레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보편 개념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신에 기초한 보편 개념이었음에 반해 다원주의적 보편 개념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회의에 기초하는 보편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험은 그러한 딜레마를 확신하는 경우 사라져야 할 근본주의(자기동일적인 주체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그로부터 불가피하게 귀결되는 타자의 객체화, 도구화)가 더욱 세밀하고 내밀한 것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어진다. 다원주의가 이제껏 객체화되었던 다양한 타자들의 주체됨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한편, 타자의 객체됨을 더욱 심화시키는 우울하고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²⁸⁾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규정되던, 가변적인 것으로 규정되던 현실 영역의 실체적이며 미시적인 ‘차별들’이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동질적인 ‘차이들’로 중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 다원주의는 절대화되고 절대화된 다원주의로 변모되는 보편주의는 허구적이며 동시에 폭력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허구적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머니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머니티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휴머니즘의 미명 아래) 휴머니티로부터 배척”(Bourdieu, 1997)해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폭력의 전형일 뿐이다.

더 큰 곤궁은 이렇다.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실천이 허구적인(따라서 폭력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천의 주체는 항상적인 자기 의심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 과연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과 자기를 회의하는 실천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인가.

4. 마치며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미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지 6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여전히 이렇다 할 생산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국경없는 시민권 제안이 이주 노동의 문제가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의제화되는 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적 비실체로서의 열악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원곡동 역시 다문화적 역동성이 분출되는 공간으로 새롭게 생성됨으로써 자본이 강요했던 공간적 불균등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역내 오지로의 전락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실험성에도 불구하고 표류 상태를 담보하고 있는 까닭은 몇 가지 점에서 추론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그것이 장기적인 비전에 기초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더구나 인간의 의식과 사회 구조의 개혁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프로젝트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기에 조급한 결과를 내는 일보다는 그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동의 이념과 정당성을 알리는 일에 좀 더 집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6년여는 국경없는 마을의 ‘준비기’였으며 국경없는 마을을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일은 이제부터의 과제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이 국경없는 마을의 답보

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글의 첫장에서 우리는 국경없는 마을을 주목할 수 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사회과학적 논제들과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와의 친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과 관련 이 글이 목표로 했던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경없는 마을은 지구화로 인해 가능해진 대안적인 지구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 운동이다. 개념적인 수준으로 제한했을 때 국경없는 마을은 지구화와 지역화라는 상반된 영향력의 대등한 길항 작용이 이루어지는 중립적인 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지구화로 교류가 가능해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주체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공간과 방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구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을 복원해내는 것이 국경없는 마을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국경없는 마을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지구화 가설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치는 여전히 지역 정치를 압도한다. 곧 지구화는 국가 공간과 지역 공간 사이의 권력의 위계를 결코 중화시켜주지 못한다. 지역 복원 프로젝트로서의 국경없는 마을이 중앙 단위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 결과 탈지역적인 설득력을 얻어갈수록 국경 없는 마을의 역내 고립은 심화되어버린다. 지구화가 강요하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하비, 2000)은 역내 공간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다문화적 인적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원곡동은 지구지역화가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선택하는 지역지구화 프로젝트의 공간적 거점은 소위 지역 혁신의 인프라와 광활한 공휴지가 존재하는 신도시 지역이다. 이것은 지구화가 결코 중립적이거나 탈정치적인 과정이 아님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대안적인 지구화 운동이 되고자 한다면 국경없는 마을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명백한 정치 운동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듯싶다.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적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성찰적 근대화 기획과 주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원곡동의 일상에서 성찰적 근대화의 징후를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곡동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어우러지는 공존의 마당이라기보다는 획일화된 물질적 욕망의 결집지요, 그 쟁취를 위한 전장에 가까워 보인다. 이것은 성찰적 근대화 기획이 근대(산업 자본주의) 기획의 성찰적 전화를 위한 물질 토대와 이념적 동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모순적인 근대 체제의 관철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성찰적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탈물질적(post-material)이며 탈빈곤(post-scarcity)’사회 프로젝트이다. 독자적이며 다양한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로부터 ‘의식이 물질을 규정한다’로의) 이념적 급진성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이념적 급진성은 이미 충족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국경없는 마을의 문제는 그것이 추구하는 문화적 급진성이 그 물질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혹은 물질 토대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한) 투쟁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원곡동의 일상은 물질 풍요(혹은 그로부터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물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물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가 원곡동의 절실한 과제가 되어야하는 셈이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바 있는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이며 유기적인 상호 작용은 여전히 시도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센터가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의 강조점을 자주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있고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이주 노동 문제의 해법과 관련된 박목사의 강조점은 이주 노동조합 운동, 귀환 운동, 공동체 운동, 시민권 운동, 노동 허가 청원에서 최근의 고용 허가제 개선과 장기 체류자 및 이주 자녀 영주권 부여 운동 등으로 변화해 왔지만 그 변화의 근거가 설득력있게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최근 들어 박목사 자신이 현장 활동가와 전문적인 이론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경없는 마을이 거론되는 빈도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개방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는 일은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

국경없는 마을과 같은 새로운 사회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박목사는 ‘한국적 신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국경없는 마을이 사회 운동 진영에 값진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경없는 마을은 반지구화, 노동, 정체성, 다문화, 생태, 소수자, 공동체 등 기존의 부문 운동에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운동론의 구성이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의 경험은 오래되고 풍부한 서구사회에서조차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에 성공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의 성과 여부는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적 신사회 운동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일과 더불어 센터와 같은 이주 노동 운동 기관의 자기규정을 갱신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운동단체와 시민단체는 활동 대상과 성격으로 구분된다. 운동단체가 국가 의제에 집중(국가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한다면, 시민단체는 국가정당성의 합리적 기반 강화(시민사회의제)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경없는 시민권의 구현이라는 탈국가적 의제를 자임해야 하는 이주노동 지원 운동단체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 점에서 새로운 사회 운동론의 구성이 운동 주체를 새롭게 규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무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들은 국경없는 마을이 우리 사회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상과 현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몇몇 문제점들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경없는 마을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실험적인 사회 운동에 대한 문헌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는 명백하다.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기계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의 조

합만으로 접근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상적이며 집합적인 실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인 논평을 시도한 것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는 정의로운 다원주의 사회를 향한 풍요로움과 급진적인 상상력들이 (역설적이지만) 이론의 지평을 넘어 역동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경없는 마을의 꿈이 우리들에게도 희망임은 분명하다. 국경없는 마을의 꿈이 현실화되는 데에 우리들의 연구가 조그만 기여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註

- 1) 성찰적 근대란 국민 국가 체계를 떠받치고 있던 각종의 사회적 구획과 관계, 그리고 가치의 위계들이 전적으로 재구조화(dis-embedding/re-embedding)되는 새로운 근대를 뜻한다. 성찰적 근대화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오경석(2004)을 참고할 수 있다.
- 2) 덧붙여 안산 지역에 대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가설을 검증해보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현재 “지역발전의 조건과 과제에 관한 연구: 근대 안산의 형성과 ‘성찰적 근대’로서의 대안적 안산”이라는 주제의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우리들의 문제 의식은 압축적 근대화로 대변되는 지난 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을 성찰적인 것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안산 지역에서 발굴해보고 타진해보는 것으로 모아진다.
- 3) 예컨대 ‘국경없는 마을’ 관련 학술연구로 이태정(2004), 예동근(2004), 박배균·정건화(2004) 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논평선으로서 박채란(2004), 그리고 그를 준거로 인용하는 학술연구로서는 한건수(2004), 설동훈(2004) 등이 있다. 그 밖에 박목사가 제안한 시민권 관련 포럼은 박목사가 직접 발제자로 참여한 것만 2004년에 두 차례에 달한다.
- 4)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권 논의를 들 수 있다. 시민권은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데, 2001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7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함으로써 박목사는 2000년대 시민권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는 근대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이 내장되어 있다. 이를테면, 시민권이라는 보편적

- 가치와 공동체라는 특수한 가치를 종합시키는 문제, 국가, 시민사회, 자본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문제, 노동, 문화, 생태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 5) 그러한 실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명목적인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일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강령, 조직, 리더쉽, 자원 등이 필요한 것일까?
 - 6)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우리들의 연구가 '2년 과정'의 연구로 기획되었다는 기술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1차년도에 이론적인 검토를, 그리고 2차년도에 그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행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다. 현재 국경없는 마을의 다중적인 시공간 및 그의 점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세력들 사이의 제휴와 경쟁의 양상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에 있다.
 - 7) Korean과 Asian의 합성어로, 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한 국제 결혼 가정 및 그들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원곡동 특유의 표현이다.
 - 8) 박목사의 문제의식은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로부터 (나)로 전환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구분	(가) 자본 경제적 시각	(나) 시민 사회권적 시각
이주노동자 인식	저비용 노동력, 노동의 유연화(경제적 도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가진 사람, 이동 및 정착의 자유(사회적 존재)
사회문제 인식	불법체류, 범죄, 슬럼화, 정체성 혼란	인권탄압, 인권차별, 사회적 권리 박탈
문제 해결 방식	관리 및 통제, 정주화 저지 및 추방, 내국인우선	공존, 정주허용 및 체류자 권리구제, 다원화 수용

- 9) 5년간의 추진 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단계 : 1999년 하반기- 국경없는 마을 준비기, 2단계 : 2000년- 기초 설립기, 3단계 : 2001년- 정착기, 4단계 : 2002년- 활성화기, 5단계 : 2003년- 점검 및 재도약기.
- 10) 2004년 12월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42만2천980명 가운데 43.9%인 18만5천719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천웅, 2002-2005)
- 11) 서구의 경우, 국가간 노동력의 이동은 송출국과 유입국 양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Held 외, 1999)
- 12) 사회적 실천(praxis)이란 파울루 프레이리가 기계적인 행위로서의 실천(practice)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성찰적 행위로서의 실천을 지칭한다.(Freire, 1970)
- 13) 국경없는 마을은 "권력과 돈보다는 공존을, 차별보다는 연대를, 구조만이 아니라 구조와 동시에 사람의

- 변화를, 대립과 저항만이 아니라 더불어 조화와 상생을,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운동"이라는 자기규정을 갖는다.
- 14) "이주노동자학(migrant studies)은 지구시민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을 개념화하고 그것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박천웅, 2002)
 - 1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장 35절-40절. 강조는 인용자.)
 - 16) 그와 관련한 이철우(2004b)의 문제의식은 확고하다. "인적, 공간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집단에의 소속까지를 시민권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시민권이 복수의 제도적 층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국가에의 소속을 기준으로 집단적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는 현존실재를 극복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 걸친 연대와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의 탐색을 가져오겠다는 정치적 동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념 정의가 그러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수적일까?" 그의 해법은 "정주외국인의 특수한 지위는 대니즌쉽(denizenship)으로 포착하여 시민권과 구별하는 것"이다.
 - 17) 다문화 공동체가 실제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기존의 공동체 운동의 한계(운동을 선도하는 주체 범주의 제한, 주민 참여 제한, 지배 문화와 제도적 질서로의 흡수)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그 실험적인 대안성의 의미는 크게 손상될 수 밖에 없다.
 - 18) 센터가 보여주는 '전문가주의'의 집착은 대안의 정당성과 관련,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대안의 창조성은 사후적인 것으로 약화된다.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자원으로서는 비전문가 주체들의 수행적 능력은 우연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폄하되어 버린다. 이에 대해서는, Beck, 1986.
 - 19) 이주 노동이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주노동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철학과 가치, 경제적 이해 관계들이 충돌한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일국적 문제이자 국가간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이자 개인적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며, 계급의 문제이자 인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노동 시장과 관계된 경제의 문제이자 동시에 문화적 관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주노동 정

- 책의 문제이자, 그러한 정책에 대항하는 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를 뛰어넘는 보편적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주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완결된, 합의된 해법을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 나라들이 실행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다양성(차별배제, 동화, 다문화주의)과 이주자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적응 전략(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이 이주노동문제의 이러한 복잡성을 반증한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 문제 그리고 그 해법과 관련, '동질성 혹은 선형성'의 신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오경석, 2005a)
- 20) 박천웅 목사(2002~2005)의 표현을 빌자면, “국경없는 시대의 변화의 물결을 대부분의 안산시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2004년 11월 한신대학교 경제학부가 주관한 안산지역조사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은 자신이 원곡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원곡동이 “그런 곳(국경없는 마을)”인지 처음 알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통장을 억입한 동네 아주머니에 의하면 안산 시민 대부분은 원곡동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부정적이라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들이 인터뷰한 20여명의 이주노동자들까지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전혀 모르거나 혹은 냉소적인 태도를 표현했다는 점이다.
- 21) “부차성의 원칙”이란 지구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경없는 마을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 국경없는 마을의 토대와 동력으로서 ‘안산시 원곡동에만 고유한 현실성, 삶의 규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유보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22) 근대적 주체는 모든 강함, 선함, 정의로움, 아름다움, 고상함 등을 독점한다. 타자는 그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존재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근대적 의미에서, ‘이성, 남성, 서구, 백인, 자국인, 정상인, 건강한 사람, 부자, 문명, 어른, 문화’가 주체라면, ‘감성, 여성, 비서구, 유색인종, 외국인, 광인,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원주민, 아이, 자연’은 타자에 해당한다. 타자는 ‘비인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어떤 폭력, 억압, 착취, 모욕도 원칙적으로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근대가 그어놓은 이 무차별한 경계선은 허구적이며 자의적이다. 이 ‘허구성, 자의성’을 파쇄해, 다양한 주체들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다양성 그 자체가 상호존중되고 향유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근대 넘어서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 23) 하버마스의 상호주체성, 의사소통합리성, 벡의 이기주의적 이타주의, 레비나스의 ‘주체는 종이다(Subject is subject)’로 압축되는 타자의 윤리 등. 이에 관한 간단한 소개로는 오경석, 2005b.
- 24) 철학은 일종의 “개념화된 자화상”(김상봉, 2002)으로서 세계관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탐구영역을 갖는다.

- 25) ‘환대’는 칸트의 개념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곧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혹은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 수용’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근대 자유주의적 사유의 산물이다. (문성원, 2000)
- 26)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를 자신의 종합의 원리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 27) 이에 대해서는 벡의 “맥락적 보편주의”를 참고할 것. (Beck, 1997; 오경석, 2002)
- 28)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타자화에 대한 논평으로는 한건수(2004)를 참조할 수 있다.

文獻

- 강영안(역), 1998, 시간과 타자, 문예(Levinas, E. 1979).
- 경기도, 2004, 경기도외국인정주여건실태와 정책과제
- 김상봉, 2002,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한길사.
- 김용권(역), 2001,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Bourdieu, P. 1997, *Meditations Pascaliennes*).
- 김은실, 2004, 지구화시대의 성매매, 이주여성,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권,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김현수(역), 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IVP (Sire, James W. 1976, *The Universe Next Door*)
- 남경태(역), 2004, 페다고지, 그린비(Freire, F.,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 문성원, 2000, 배제의 배제와 환대, 동녘.
- 문순홍(역), 1998, 정치의 재발견, 거름(Beck, U. 1993,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Suhrkamp Verlag).
- 박구용, 2003, 우리안의 타자, 철학과 현실사.
- 박배균·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지 10(4).
- 박천웅, 2001,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권, 안산센타 7주년 기념식 심포지움.
- 박천웅, 2002,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박천웅, 2004a, 외국인 노동자 시민권 공론화하자, 이주노동자 시민권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 박천웅, 2004b, 지구시민사회와 시민권-국경없는

- 마을, 세계화, 이주노동 그리고 시민사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박천웅, 2004c, ‘국경없는 마을’의 의의와 한계의 지적에 관하여, 미간행 토론회.
- 박천웅, 2005, 국경없는 마을 철학과 진행과정, 국경없는 마을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샵.
- 박채란, 2004, 국경없는 마을, 서해문집.
- 서동진, 2004, 성적 시민권과 비이성애적 주체, 최협 등(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서용석·박철현(역)(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일신사(Turner,B.S.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Routledge).
- 설동훈, 2004,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최협 등(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안산의제21, 2006, 안산시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미간행보고서.
- 예동근·오타타카코, 2004, 외국인과 지역주민과의 공생관계 연구: 일본 오타시 오이즈미마치와 한국 가리봉동, 원곡동 비교 분석, 호원논집(12).
- 오경석, 2002, 백, 2차 근대의 사회학 방법론, 사회와 문화(13).
- 오경석, 2004, 성찰적 근대화론에 관한 비판적 조망, 동향과 전망(61).
- 오경석, 2005a,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 안산의제21 주관 2005 파트너쉽 릴레이정책토론회 자료집.
- 오경석, 2005b, 들꽃피는 마을 11년에 관한 사회학적 단상 몇 가지, 들꽃피는 마을 11주년 기념 자료집.
- 유명기, 2004,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최협 등(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윤진(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 이동수, 2004, 탈현대사회 대안공동체, 한국정치학회보, 38(1).
- 이주명(역), 2003, 더 나은 세계화는 가능하다, 필맥(International Forum of Globalization, 2002,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 이철우, 2004a,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 정인섭 편, 이중국적, 사람생각.
- 이철우, 2004b, 이주자의 국적과 시민권, 세계화, 이주노동 그리고 시민사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이철우, 2004c,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2004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 이태정, 2004, 한국사회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와 연대: 안산시 ‘국경없는 마을 사례’, 2004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 임현진 등, 2002,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은주, 2003, 문화다원주의와 보편주의, 한국철학회(편),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철학과 현실사.
- 정일준(역),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Beck.U, 1995, *Die Feindelose Demokratie*, Suhrkamp Verlag).
- 조만영(역), 2000, 지구화의 길, 거름(Beck.U, 1997, *Was ist Globalisierung?* Suhrkamp Verlag).
- 조명래, 2003,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 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 조정환(편역), 2000, 미래로 돌아가다, 갈무리(Negri, A. 1998)
- 조효제(역), 2002,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Held, D, 1999, *Global Transformation*, Balckwell).
- 조효제·진영중(역), 2004,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 아르케(Anheier,H., Kaldor,M. and Glasius,M.) (ed.), 2002, *Global Civil Society Yearbook*, Oxford).
- 최병두·이상율·박규택·이보영(역), 2001, 희망의 공간, 한울(Harvey, D. 2000, *Spaces pf Hope*).
- 최현, 2004a, 시민권과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시민권 심포지엄 자료집,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최현, 2004b, 한국 시민권 특성에 관한 연구: 시민의 능동성과 공적 영역 지향성을 중심으로, 2004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 푸른부천 21실천협의회, 2004, 경기 서부 지역 거주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
- 한건수, 2004, 타자만들기, 최협 등(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2004,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 높이 깊이.

- 황대권(역), 2005, 새벽의 건설자들, 한겨레신문사
(McLaughlin C.: Davidson G, 1985, *Builders of the Dawn: Community Lifestyles in a Changing World*).
- 현영학(역), 1979, 눌린자의 하느님, 이화여대출판부
(Cone, J.H. 1975, *God of the Oppressed*).
- Castles, S and Miller, M.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London, Macmillan.
- Etzioni, A. 2004, *From Empire to Community*, Palgrave.
- Gonzalez, Jr. J.L. 2003, *Racial and Ethnic Groups in America*, Kendall/Hunt Publishing Co.
- 박천웅, 2000-2005, 박천웅 목사 칼럼, 안산시외국인노동자센터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
- (접수 : 2005. 10. 16, 채택 : 2006. 1. 26)
- 교신 :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gunna@hs.ac.kr)
Correspondence : Jung Keun Hwa(Dept. of Economics, Hanshin University, gunna@hs.ac.kr)